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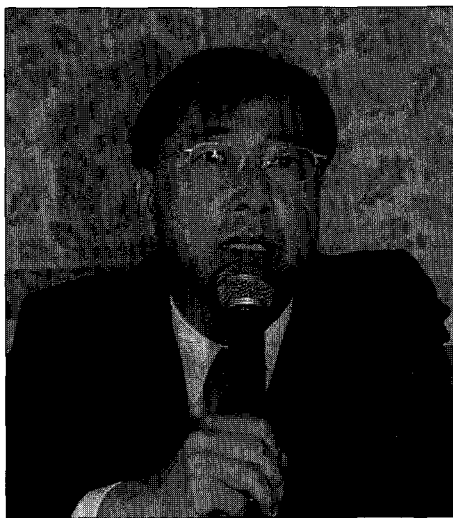


# 전국사슴농가연, 녹용계약생산 수매

- 농가당 1~2천냥씩 총 20만냥 규모 -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책임져야 하는 양육업 현실에서 생산과 판매를 이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된다.

전국사슴농가연합(대표 : 김연명)은 올해 업계 최초로 녹용계약생산제를 실시, 농가는 생산을, 농가연합은 판매를 책임지는 생산 판매 이원화 사업을 펼친다.



▲ 전국사슴농가연합 김연명 대표

농가연합 김연명 대표는 “지난 5년간 흡수핑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녹용 소비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본 연합과 농가가 직접 생산 수매 계약을 체결, 농가는 판매에 대한 부담 없이 양질의 녹용 생산에만 전념하고 이를 농가연합이 수매, 우수한 국산녹용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외산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목적을 설명했다.

농가연합은 사업 원년인 올해 약 20만냥의 녹용을 계약생산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농가당 계약물량은 1,000~2000냥으로 한정, 가급적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가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는 연 1~2회 사슴사양관리 및 녹용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 받으며 계약 생산한 녹용은 수매당시의 유통가격으로 수매와 동시에 현찰을 지불 받게 된다. 단 수매가격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등급기준은 별도로 제시할 방침이다.

계약 신청은 2월 중순까지 실시되며 신청농가는 선착순 150농가로 마감된다.

농가연합 김연명 대표는 “녹용 판매가 원활할 경우 늘어나는 물량만큼 최초 계약 농가에 사슴입식을 장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사슴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더욱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 녹용 판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양육**

〈문의 및 접수 : 043-733-0441~2〉